

세계 揮發油 수급전망

세계 석유산업은 금년도에 앞으로 10년간에 걸쳐 지속될 만성적 휘발유 생산과잉의த்தை 기록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 밀라노 소재의 컨설팅회사 파르피넬리 테크논(Parpinelli Tecnon)사는 「세계 에너지와 경제능력 조감」이란 제하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금년도 휘발유 수급이 하루 10만배럴 이상의 공급초과를 기록할 것이며, 이러한 공급과잉 현상은 계속 심화되어 5년 뒤인 1990년에 가서는 하루 평균 23만 5천배럴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컨설팅 회사의 조사분석에 따르면, 세계 휘발유 수급은 1981년부터 3년 계속 공급부족 사태를 겪다가 84년에 하루 1천 510만배럴 수준으로 대

략적인 수급균형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83년부터 금년까지의 수급 밸런스를 수치로 보면 83년에는 하루 18만 4천배럴 수준의 공급부족, 84년 하루 5천배럴 공급초과 정도의 비교적 수급안정 상태에서 금년도에는 하루 10만배럴의 공급과잉 상태로 반전된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도래할 휘발유 공급과잉 현상은 ▲세계 전역의 정제업자들에 의한 전환능력의 과잉설비와 ▲中東지역을 필두로 한 산유국들에서의 수출전용 정제시설의 확충 등 두가지 이유에서 주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인 문제는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인 美国에서 휘발유 소비가 크게 감소될 것이라는 점과 美国 다음으로 큰 시장인 西유럽에서도 휘발유 소비가 역시 감퇴를

세계 휘발유 수급전망

(單位：백만B/D)

	生 産			消 費			초 과(부족)		
	1985	1990	1995	1985	1990	1995	1985	1990	1995
美 國	6.60	5.93	5.57	6.79	6.08	5.70	(0.19)	(0.15)	(0.13)
西 유 럽	2.49	2.56	2.53	2.44	2.40	2.36	0.05	0.16	0.17
東 유 럽	1.99	2.28	2.53	1.92	2.21	2.49	0.07	0.07	0.04
중 남 미	1.32	1.44	1.59	1.15	1.34	1.53	0.17	0.10	0.06
亞 · 太	0.95	1.11	1.29	0.97	1.12	1.28	(0.02)	(0.01)	0.01
日 本	0.64	0.71	0.73	0.64	0.71	0.73
中 東	0.59	0.77	0.84	0.48	0.62	0.73	0.11	0.15	0.11
캐 나 다	0.63	0.59	0.59	0.62	0.59	0.59	0.01
아프리카	0.35	0.47	0.57	0.44	0.56	0.72	(0.09)	(0.09)	(0.15)
計	15.56	15.87	16.23	15.45	15.64	16.14	0.11	0.23	0.10

먼저 못하리라는 점이다.

세계 전체 휘발유소비의 절반에 육박하는 44%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왕국 美国은 전통적인 휘발유 수입국으로 자체 공급 부족량은 ▲83년 하루 32만 8천배럴 ▲84년 하루 25만 7천배럴을 기록했으며, ▲금년중에는 하루 19만배럴 선으로 줄어들고 ▲1995년에 가서는 하루 13만배럴 미만으로 감축된다는 분석이다. 美国의 공급부족 완화는 생산능력이 증대되어서가 아니라,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

美国의 휘발유 수요는 84년 이후 공급가격의 하락과 차량의 대형화 복귀추세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대해 왔다. 그러나 경제가 또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덜 능률적인 낮은 차량의 신형으로의 대체가 촉진되고 있고, 이에 따라 또 다시 휘발유 소비 감소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유럽에서도 똑같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유럽은 美国과 같은 현상이다 디젤엔진의 급속한 자동차업계 침식이 휘발유 수요증가의 또 다른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이탈리아와 벨기에에서는 디젤차량이 새자동차 시장 판매량의 20%를 점유하고 있다. 앞으로 10년간 西유럽에서만 980만대의 디젤자동차가 늘어날 예상인데, 같은 기간중 휘발유 차량 증가대수 1천20만대에 거의 필적하는 증가추세로 그렇게 될 경우, 자동차 연료의 점유율은 디젤이 현재의 배에 가까운 12.6%, LPG나 압축 천연가스가 2.2%를 차지하게 된다.

中東지역은 휘발유 수입지역에서 상당 규모의 수출지역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이 지역은 금년도에 하루 10만배럴 이상의 공급초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공급초과량은 곧바로 세계 전체

예상 공급 초과량과 대략 일치하는 규모이다. 다수의 초정밀 정제시설이 가동을 시작한 것과 때를 같이해서 고가의 국내 휘발유 가격은 내수용 휘발유의 소비증가를 둔화시켰다.

그러나 中東지역의 정제원유 전체에서 차지하는 휘발유의 평균收率은 80년의 10.6%에서 95년에 가서는 13.5%로 대폭 증대될 예정이다. 따라서 中東지역은 美国과 아프리카 휘발유 수입시장에 대한 공급자로서 西유럽 정제업자들의 경쟁자로서의 위치가 점차 부각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과잉공급사태는 현재 세계 최대의 휘발유 수출지역인 中南美 지역의 자체 소비증대로 인한 초과공급량의 감소로 다소나마 완화될 전망이다.

한편 日本은 앞으로 10년간에도 꾸준한 소비가 신장될 예상이어서 휘발유 소비시장으로서 중요한 키를 쥐고 있다. 현재 日本 통산성은 전체수요의 10%까지 휘발유 수입허용을 고려하고 있으며, 수입이 허용될 경우 공급초과분의 상당부분을 흡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日本 정제업자들은 그들에게 가장 이윤이 좋은 휘발유의 수입허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휘발유 수입 창구로서의 일본의 수용능력은 일본을 제외한 여타 아시아·태평양지역 시장의 수용능력을 크게 추월하게 될 것이다. 여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휘발유 소비도 지속적인 신장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이 지역은 공급능력이 오히려 더 큰 신장세를 보여 금년도 하루 2만배럴 정도의 공급부족에서 90년에는 1만배럴 수준의 공급부족을 나타낼 것이며 95년도에 가서는 오히려 1만배럴 정도의 공급초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PIW)

나라위해 바친희생

예우로서 보답하자

84년도 日本石油 12社の 決算 현황

수요감퇴로 매출액 감소

日本석유업계는 석유류의 수요감퇴와 환차손등으로 매출액 및 경상이익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최근 日本 석유회사들의 85년 3월기 決算결과를 보면, 석유류의 수요감퇴로 판매량은 일부 회사를 제외하면 前期(84년 3월기)보다 하회하고 있으며, 휘발유·등유 등의 市況의 악화로 매출액도 감소했다. 원유가격의 하락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환율상승에 따른 환차손의 증가로 경상이익이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減收減益의 決算을 나타내고 있다.

▲ 판매량=3월기 決算의 石油 12社 중 元売 9社의 판매량은 出光興産, 제너럴石油, 九州石油의 3社를 제외하면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다. 이것은 호환이었던 전년도보다 등유수요가 감소한데다가 발전용 重油의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元売 9社의 판매량은 2억 5천 9만 2천ℓ로 전년도에 비해 1.8% 줄어들었다. 판매량이 증가한 3社 중 제너럴石油은 관련회사에서 경제專業의 南西石油에 대한 원유판매를 84년부터 개시했기 때문이다.

▲ 매출액·경상이익=키크나스, 富士興産을 제외한 石油 10社의 총매출액은 13조 7천 5백 44억 4천 400원으로 판매

량의 감소와 텀핑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4.2%가 감소했다. 또 유전시기간의 단축 등의 금융수지개선을 도모했으나, 제품市況의 악화로 出光興産, 共同石油를 제외한 각사가 환차손을 내 경상이익도 크게 악화됐다.

石油 10社의 경상이익은 모두 6억 4천 400만 원(전년대비 99.2% 감소)의 흑자에 그쳤다.

▲ 환차손익=환차익을 본 것은 出光興産과 共同石油의 2社 뿐이며, 나머지 10社 중 日本石油는 日本石油精製, 興亞石油, 日本海石油의 그룹精製 3社의 환차손익을 각사와 나누어 영업비용에 계상하고 있다. 이를 환차손익에 포함시키면 同社의 환차손은 43억 4천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丸善石油, 大協石油는 지난해 10월 코스모石油에 원유구입에서 정제까지 일괄위탁했는데 上期(84년 4~9월)에만도 각각 1백억 원, 53억 원의 환차손을 기록했다. LPG수입에 따른 차익을 계상한 共同石油도 그룹전체(日本鉞業, 塵島石油, 富士石油)로는 90억 원의 차손을 냈다.

▲ 수익성=10社 베이스의 매출액경상이익률은 0.04%로 전년도의 0.54%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 또 자기자본 이익률은 7.7%와 同 7.4%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다. *

84년도 日本석유업계 決算 현황

	販賣數量 (천ℓ)	賣出額 (억 원)	經常利益 (억 원)	換差損益 (억 원)	原油價格 (\$/B)	販賣單價 (円/ℓ)
※日本石油	47,689 (51,635)	50,834 (33,247)	146 (252)	▲19 (43)	28.00 (28.80)	64,657 (64,388)
※出光興産	39,169 (38,255)	26,039 (26,317)	90 (259)	17 (256)	28.00 (28.30)	66,478 (68,793)
※共同石油	35,455 (36,612)	23,430 (24,891)	▲59 (24)	5 (13)	27.49 (27.62)	66,084 (67,985)
※丸善石油	23,154 (23,280)	15,974 (16,588)	▲92 (28)	▲100 (107)	27.80 (28.30)	68,990 (71,253)
※三菱石油	17,398 (18,082)	11,936 (12,654)	▲88 (▲16)	▲84 (45)	28.07 (28.40)	68,603 (69,983)
※大協石油	17,569 (18,218)	11,810 (12,745)	▲87 (17)	▲53 (87)	28.44 (28.88)	67,218 (69,957)
※제너럴石油	12,159 (10,343)	8,009 (7,475)	3 (99)	▲55 (48)	28.22 (28.95)	65,866 (72,749)
※키크나스石油	4,911 (5,105)	3,597 (3,907)	7 (43)	—	—	73,253 (76,533)
※九州石油	7,588 (7,314)	4,455 (4,468)	46 (102)	▲29 (32)	28.23 (28.01)	58,711 (61,087)
興亞石油	9,106 (9,452)	4,710 (5,037)	34 (6)	▲15 (41)	—	51,727 (53,289)
東亞石油	2,599 (2,461)	347 (283)	13 (10)	—	—	—
富士興産	4,806 (5,437)	2,762 (3,235)	▲191 (▲260)	▲26 (23)	27.66 (27.97)	57,476 (59,506)

註: ① ※은 元賣, ② 原油價格은 FOB기준, ③ 共石의 原油價格은 그룹전체, ④ 販賣單價는 決算報告書의 賣出額을 販賣數量으로 나눔, ⑤ 東亞石油의 數値는 生産베이스, ⑥ 괄호안은 83년도 실적.